

12 참여마당

세계시민으로의 한걸음

김상우

프랑스어학 2018



1년 남짓한 교환 생활을 마친지 벌써 4달째다. 최근 국내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하여 한강 작가의 축하 기자회견 거부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축하 기자회견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였다. 그때 다시 교환학생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라마단 기간에 종교에 관계없이 기숙사에서 저녁식사를 나눠주던 이슬람권 친구들, 여행지 곳곳에서 보았던 여러 시위들, 마르세유 거리에서 지나쳤던 난민들까지.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그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다니.

교환학생을 가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프랑스의 구석구석을 더 알고 싶다'였다. 과거의 모습도 아니고, 수도인 파리도 아닌 더 다양한 모습의 현재의 프랑스를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며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지방 소도시의 축제도 찾아갔다. 세어보니 총 31개 도시에 방문했다. 그동안 다녔던 박물관, 미술관은 더 많을 것이다. 이번 파견으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

방문한 거의 모든 전시에 이민자를 다루는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유럽 내에서는 너무나 오랜 사회문제이다. 저번 '아를 국제 사진축제'에는 클라리스 한(Clarisse Hahn)이 '거리의 왕자들'(Princes de la rue)이라는 제목으로 이민자로 이루어진 노동자 계급 사회를 다뤘다. 단지 성이 아랍식이어서, 외형이 달라서 더 높은 직급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이들이 실은 식민지 시대에 북아프리카에서 모집된 프랑스군의 후손들이라는 증언과 함께 작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민자들이 본토에서 나고자란 프랑스인과 다르게 대우받을 건 뭐가?' 외부인을 모두 수용하면서 동시에 소외된 사람들의 상처와 기억들을 다룬 작품이었다. 난민들이 자국을 벗어나 어떻게 지중해를 건너 프랑스에 도착하는지를 다룬 작품 역시 눈길을 끌었다. 바다를 건너는 동안 예측불허의 위험에 노출되고, 무력한 대처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생긴다. 이를 알고도 가족 전체가 구명조끼에 의지해 노를 젓는다.

이민 2, 3세의 정체성 문제도 예



① 1920년대부터 쿠르드족의 언어, 풍습등을 금지한 튀르키예 정부에 대항하는 단체 PKK의 시위현장 ②엑스-마르세유 대학이 위치한 엑상프로방스는 시내에만 250개의 분수가 있는 물의 마을이다 ③12월 9일 카르카손에서 열린 성 니콜라스 행진을 기다리며 길 잃고 굶주린 아이들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 ④왼쪽 상단에서 두 번째가 필자 (사진=김상우씨 제공)

술계에서 많이 다루어진다. 전쟁이나 독재로 인해 프랑스에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희망을 안고 자식을 교육한다. 자식은 프랑스인으로 살

아왔지만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비자 종료 한 달 전 떠났던 지중해 횡단 여행 때 들렀던 여러 국가들에서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여러

전시회와 해결책을 강구하는 시위들이 열리고 있었다. 평화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 행동들이 타국인인 나의 마음까지 울렸던 건, 평화는 인류 전체가 수호

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프랑스어권 나라들의 문학을 소개하는 발표를 한 적 있다. 나는 체코의 밀란 쿤데라와 헝가리의 아고타 크리스토프를 소개하며 두 작가에게 프랑스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했다. 동유럽 혁명으로 인해 조국을 떠나 각각 프랑스, 스위스에 정착한 작가들이다. 쿤데라는 자신이 직접 선택해 프랑스로 망명을 왔다. 자신의 문학을 좋아하고, 이해해 주는 나라를 골라 후에는 모든 작품을 프랑스어로 집필했다. 그에게 있어 프랑스어는 문학의 언어다.

반면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갓난 아이를 안고 국경을 넘어 난민캠프에서 머물다 무작위로 선발된 스위스에 도착한다. 알아들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공장에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다. 책을 좋아하고 항상 일기를 쓰던 자신이 한순간에 문맹이 되었다고 회고한다. 그 녀에게 프랑스어는 생존의 언어다. 모두 1960년대의 일이다. 이런 일이 2024년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사상자와 난민은 계속 나오지만 이제 유럽은 국경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프랑스에는 한국 문화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은 한국 만화의 역사와 웹툰 소개를 위해 건물 하나를 할애했다. 제주 4.3사건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Impossibles adieux(불가능한 작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2023년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상을 받았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한국어 학당에 찾아온다. 심지어 한국식 핫도그를 전문으로 파는 프랜차이즈점이 입점했다고 마을 신문에 소개된다. 전부 1년간의 교환 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이다. 지금은 한국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다. 모두가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관심을 쏟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세계시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운이 참 좋은 거라고. 파견 온 학생들의 국적이 많이 달라졌다고. 프랑스에 막 도착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닐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한 이야기로 오티를 시작해서 어리둥절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하겠다.